



마을공동체 · 문화프로그램 활성화 꾀한다

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제공

전주시민들의 생활 속 가까운 곳에 위치한 공립 작은도서관들이 전주지역에서 활동하는 시인들을 직접 만나 글 쓰는 법을 배우는 ‘시인의 서재’가 되고, 스탬프투어와 생태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등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제공된다.

이를 통해, 시는 작은도서관을 주민 사랑방으로 만들고, 마을공동체와 문화프로그램 활성화를 꾀할 계획이다.



전주시는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시 자체 공모사업 등 5개 공모사업에 꿈드림작은도서관 등 전주지역 9개 공립작은도서관이 선정돼 국비 1억 3700여만원을 확보, 지역특성을 고려한 작은도서관 특화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. 전주에는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조성·운영하는 공립작은도서관이 28곳 운영되면서 각 지역의 문화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.

- 정부 · 시 자체공모사업 등 선정
- 9개 작은도서관 ‘2018 책친구’ 등 선정
- 국비 1억3700여만원 확보
- 28개 공립작은도서관, 이달부터
- 독서대전과 연계한 스탬프투어 전개
- 금호작은도서관 등 특성화 사업
- ‘시인의 서재’ 프로그램 운영

선정된 사업은 △꿈드림작은도서관의 공동육아 프로그램(전주시 온두레공동체 사업) △전주작은도서관의 실내리모델링 조성(산림청 녹색복지시설 조성사업) △평화꿈틀작은도서관 · 인문문화의 집작은도서관(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) △모퉁이작은도서관 · 책마루어린이도서관(2018년 책친구) △전주작은도서관 · 덕진품에작은도서관 · 평화꿈틀작은도서관(전북도교육청 돌봄형 방과후 마을학교) 등이다.

또한, 전주지역 28개 공립 작은도서관은 올해 함께 또는 각 도서관 특성에 맞는 특화프로그램을 협력 · 운영할 계획이다.



대표적으로, 28개 작은도서관은 이달부터 공립작은도서관협의회와 작은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전주독서대전과 연계한 ‘작은도서관 스탬프 투어’ 사업을 추진한다. 스탬프투어에 참여해 작은도서관을 찾은 가족에게는 독서대전 체험권과 대출권수 확대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.

특히, 전주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를 알리고 주민들과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인 ‘시인의 서재’ 사업도 눈여겨 볼만하다. 이 사업은 금호작은도서관

관 등 8개 작은도서관과 8명의 시인이 각각 결연해 올 연말까지 ‘시인이 좋아하는 책, 추천도서, 시인의 인생 멘토 책’ 등을 선정해 도서관에 전시 비치하고, 작가가 직접 동네주민 또는 아이들과 함께 시를 얘기하고 글 쓰는 법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꾸며진다. 참여한 작은도서관은 각 도서관별 일정에 따라 △금호작은도서관 ‘밤의 귀넷의 입술’의 하기정 작가 △맑은누리작은도서관은 ‘말쭙질 멈추게 해줘’의 박월선 작가 △전주작은도서관은 ‘뽕뽕’ 안성덕 작가 △평화꿈틀작은도서관은 ‘산 밖의 산으로 가는 길’의 김형미 작가 △덕진품에작은도서관은 ‘불태운 시집’의 유강희 작가 △인후비전작은도서관은 ‘이야기할머니’의 박예분 작가 △책마루어린이도서관은 ‘학교가 돌아왔다’ 윤일호 작가 △큰나무작은도서관은 ‘햇살을 등에 지고’의 김경희 작가와 함께한다.

숲속에 조성된 건지산숲속작은도서관의 경우 생태특화독서를 구입해 도서관에 비치하고, 매주 토요일에는 39주간 △숲태교프로그램 △숲과 생태체험 활동 등을 진행하는 ‘함께 그린(Green)숲 사업’을 추진하고 있다.

이에 앞서, 시는 지난 3월부터 전주시립도서관 11개관과 27개 작은도서관에서 다른 도서관에 비치된 책을 빌려 볼 수 있는 도서배달 서비스인 ‘음書감(음서감서)’ 상호대차 서비스를 운영, 시민들의 도서대출 편의를 돕고 있다.

민선식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“작은도서관의 공간을 개방하고 다양한 지역민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작은 움직임들이 더 좋은 동네, 더 좋은 지역으로 나아가는 힘의 원천이 될 것”이라며 “작은도서관이 책을 매개로 만나 서로 배우며 함께 나누는, 마을공동체로서의 거점 역할을 기대한다”고 말했다. /기동취재반



가장 한국적인 세계도시 전주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우뚝 서겠습니다

